

2011년 인쇄 및 관련산업 전망

# 대내외 유동성 커지는 한해 IT바람 인쇄업계에도 거셀 듯



새롭게 시작된 2011년 신묘년 한 해 동안 인쇄업계는 업계 내외에서 어떤 변화와 맞닥뜨리게 될까. 연초면 항상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듯이 올해도 이런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호기심인지 모르지만 2011년은 그 어느 해에 비해서 대내외적인 유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지표는 나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과 수치를 보인 한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대두된 북한리스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3년여 만에 다시 2000선을 넘어서는가 하면 국민소득도 다시 2만 달러로 복귀한데 이어 올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도 30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긍정적이고 밝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분기 8.1%, 2/4분기 7.2%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하반기인 3/4분기 4.4%, 4/4분기 4.3%의 상대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장률 5.9%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소비 부분의 성장률은 연간 4.0%의 성장이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고 고정투자도 6.3%에 머물렀지만 설비투자과 수출이 각각 20.5%, 1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6%에 가까운 성장을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9년 말 국내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201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5% 안팎을 전망했던 것에 비해 1%이상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의 호조는 중국 등 신흥시장이 높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 1년 전에 경상수지 흑자를 150억 달러 정도로 전망했으나, 이미 10월에 290억 달러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좋은 실적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해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실적을 대거 거둬들여 2011년에 들어서도 5% 이상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끈 요소의 하나인 선진국들이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국의 재정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어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여력이 줄어들고 더딘 고용회복과 설비과잉으로 인해 지난해의 2.5% 성장에서 1.6%성장으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신흥국가들도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유동성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난해 6.4% 성장에서 5.7%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지난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부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5%의 성장이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비해서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들은 3% 후반에서 4% 중반에 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앞서 거론한 문제외에도 지난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설비투자 증가세의 대폭적인 둔화가 확실시 된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등 대외적인 부진과 소비 부문에서의 부진이 함께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에서도 정책효과가 축소되고 금리의 상승에 따라 이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2011년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외부적인 유동성이 커지고 내부적인 성장 동력 약화로 정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2011년에도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의 달성을 목표로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강하게 긴축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칫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게 국내 주요 경제 연구소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 금리 인상 추세 속에 균형재정 달성에 관심

가계와 기업 모두의 주요 관심사인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2.0%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2.5%이하 수준을 금리를 지난해 연말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정책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계속 둔화되면서 경기하락 반전을 예고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나친 금리인상은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 수요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되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경제의 급격한 회복세를 지원한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사라지면 서 올해 재정정책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을 급격하게 실행할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100~125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한 환율은 올해도 대외적인 요소인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더블 디프에 대한 우려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견해와 원화의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점진적인 중국 위안화의 절상 등에 따라 원화의 강세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견해가 혼재되어 있어 앞으로의 변동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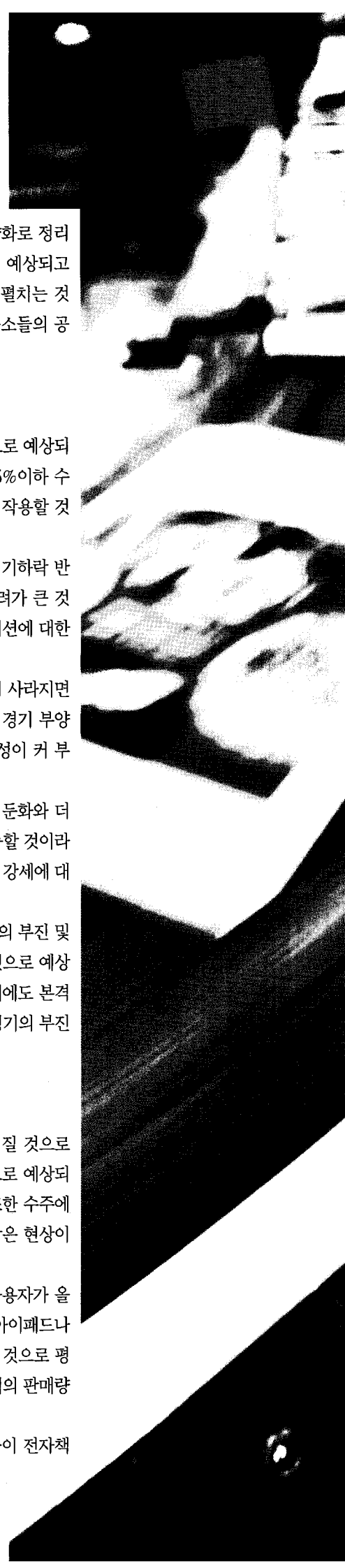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부동산 부진의 부진 및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 등이 심할 경우에는 더블 디프, 적어도 눈에 띄는 성장세 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각국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 올해에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재정의 부실화 우려와 여전한 내수 경기의 부진에 시달리면서 낮은 수준의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기둔화 인쇄업에 부담 더할 전망

세계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소비 및 재정부문에서의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는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인쇄산업의 신년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조사된 한 금융기관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인쇄산업은 설비에 비해 저조한 수주에 따라 낮은 수익성, 설비과잉, 낮은 가동률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아 인쇄업 종사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특히, 아이폰, 갤럭시S 등의 스마트폰에 이어 아이패드, 갤럭시탭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올해 최대 일천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인쇄업계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에서 구현되는 전자책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은 전통적인 종이책과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미 해외시장에서는 신간 부문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책의 판매량이 전통적인 종이책을 앞질렀다는 통계와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의 사정이 선진국과 다르고 도서시장의 유통망을 장악한 대형 출판사와 서점들이 전자책



시장에 소극적인 편이어서 전자책이 급속하게 시장 확대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자책 시장의 확장을 지연시킬 뿐, 결국에는 기존의 종이책 시장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인쇄시장에서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는 출판인쇄시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인쇄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 인쇄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기존의 유효한 홍보매체인 전단지 시장의 일정 부분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는 시장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수백만 대에 이르는 스마트폰의 보급은 1차적으로 도서출판 시장을 잠식하게 되고 이어 전단지 시장의 일부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 2011년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의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신규 설비 투자를 고려하는 인쇄업체에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쇄물 발주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가는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그나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율도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인쇄기자재의 가격 상승 압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여러 경제전문가와 경제연구소는 2011년은 전체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재정지출의 탄력성 확보, 금리 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이 거치고 있으며 현실과 흐름에서 벗어난 경직된 정책은 자칫 경기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쇄물, 인쇄기자재 수출입 호조세 보일 듯

인쇄업계는 지난해 인쇄물 수출이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수입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바 있다. 특히 인쇄물 수출은 10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3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근 수년 동안 최고 실적을 올린 바 있으나 선진국의 소비 부문이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높은 성장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은 지난해에 2009년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국내 경기의 흐름에 따라 다소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인쇄기자재의 수출입도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20%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올해는 국내 인쇄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불투명해 낮은 수준의 증가세 또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전체적인 경기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중고인쇄기의 수출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대폭적인 성장을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인쇄기 중저가모델 성장 이끌듯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인 판매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디지털인쇄기계는 지난해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여러 대의 인쇄기를 갖고 있는 중대형 인쇄사들이 오프셋인쇄를 보완, 작업라인을 합리화하기 위해 디지털인쇄기를 도입하는데 경향을 보인데 비해 소형인쇄사들은 오프셋인쇄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디지털인쇄기의 도입을 고려하는 양상이 드러난 바 있어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소량 다품종의 인쇄물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별화된 1:1 맞춤형인쇄물에 대한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사용자인 일반 고객들이 이끄는 디지털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인쇄기 공급사들은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포토북 및 앨범시장을 겨냥한 중저가형 디지털인쇄기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데 이어 올해도 후속 모델을 선보이거나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두드러진 경향인 저가임에도 고급형디지털인쇄기와 비슷한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라이트장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기능, 뛰어난 품질에 힘입어 올 한해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디지털인쇄기 공급업체와 복합기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인쇄기 시장에 진입한 업체 간의 주도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지, 대규모 설비 증설속 수요 추이에 관심**

제지업계는 2011년에도 전반적인 호조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무림페이퍼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을 준공하게 되고 중국에서도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의 원만한 조절과 제지 수요의 추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제품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성장세를 유지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해법이 제시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책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출판인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제지업계에도 인쇄용지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 1위를 둘러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쇄용지 시장에서는 무림페이퍼의 인쇄용지 연간 생산 규모가 지난해까지 70만 톤 수준에 머무르면서 한솔제지(이앤페이퍼 포함) 130만 톤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일관화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연간 생산능력이 12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해 한솔제지와 격차를 크게 줄이면서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제지업계 1위 수성과 탈환이 제지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CTP, 시스템시장 성장둔화 판재시장 가격 조정 전망**

업계 관계자들은 프리프레스업계는 수년째 지속되어 온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폭적인 신장세를 보이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UV CTP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상당부분 구매로 연결되어 새로운 신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국내의 CTP 설치 실적은 6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2~3년간 판매된 CTP 가운데 이들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름 및 CTP판재 공급업체들은 CTP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저가형 판재를 선보이는가 하면 정품가격의 인하도 제한적이지만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CTP 시스템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



이 있는가 하면 판매한계점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CTP판재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본격적인 침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을 펴는 업계 관계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CTP시스템의 판매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CTP판재 가격의 하락이 있기는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밀도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저가제품이라는 인식에 판매채널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던 중국산 CTP판재가 성능의 향상, 대대적인 유통망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도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조치로 운영경비 절감과 경영 합리화에 나선 인쇄사들이 많기 때문에 2011년에도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일 가능성은 적을 것이며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실정이다.

### 오프셋인쇄기, 판매 회복에 관심

2011년에 오프셋 인쇄기 공급사들은 본격적인 판매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족할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물의 발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으며 디지털인쇄기로 옮겨가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활발한 설비투자를 기대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셋인쇄기 공급사들은 고객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셋인쇄기 공급사들은 과거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단순한 장비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안겨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패키지화된 제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객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고속화, 편의성과 운용인원을 줄여 주는 자동화를 비롯하여 1대의 인쇄기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라인 방식 등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고 사용자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효율적인 생산유지보수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한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급인쇄물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색농도 측정기술(densitometric)과 분광기술(spectralmetric) 등을 인쇄기계와 인라인으로 연결해 철저하게 인쇄 품질을 관리하는데 등 품질관리와 일관화된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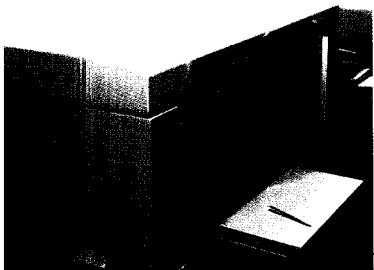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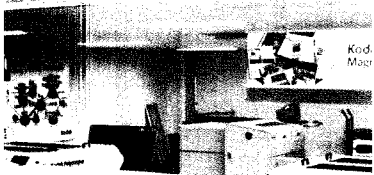
한편,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국내시장에서의 판매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오프셋인쇄기 메이커들은 다소나마 판매세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환율이 비교적으로 안정되면서 극심한 판매부진을 보였던 지난 2008, 2009년에 비해 다소나마 호전된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친환경 인쇄는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과 함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오프셋인쇄기업계의 당연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경기의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고 금융기관의 금리는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비 구입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신규수요 창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오프셋인쇄기업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 후가공, 내수 부진속 수출 모색 움직임

최근 수 년 동안 고질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한 인쇄 및 후가공 처리 단가의 정체, 인건비 및 부대비용의 상승, 생산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온 후가공업계는 2011년에 들어서도 호전되기 보다는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수년간 보유기계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자동화 및 고속화를 추구해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후가공기계



의 수요를 결정짓는 인쇄업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쇄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사용자를 위해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후가공업계의 마케팅이 잘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투자심리의 위축이 두드러져 후가공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내수 부문에서의 활발한 주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맞춤형 인쇄시장의 성장에 따라 포토북 또는 앨범과 관련된 사업에서 활로를 찾고 있으나 기대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가공업계는 지금에 비해서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인쇄시장의 부진이 단기적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선진국시장이나 아직 IT의 영향이 강하지 않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에 초점을 맞추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접지분야는 경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2011년에도 어느 해와 다름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철·제책 분야는 유럽의 최신 중철 제본기들이 수입, 소개되면서 국내의 중철 제책 품질을 높인데 이어 그 시장을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중철기 가운데 최신의 초고속 중철기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신기술과 연계된 중철 제책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친환경적인 신기술이 계속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선철 제책의 전통적인 분야인 학습지나 잡지 제책은 2011년에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의한 시장 잠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용 도서 시장의 수요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 파급효과가 제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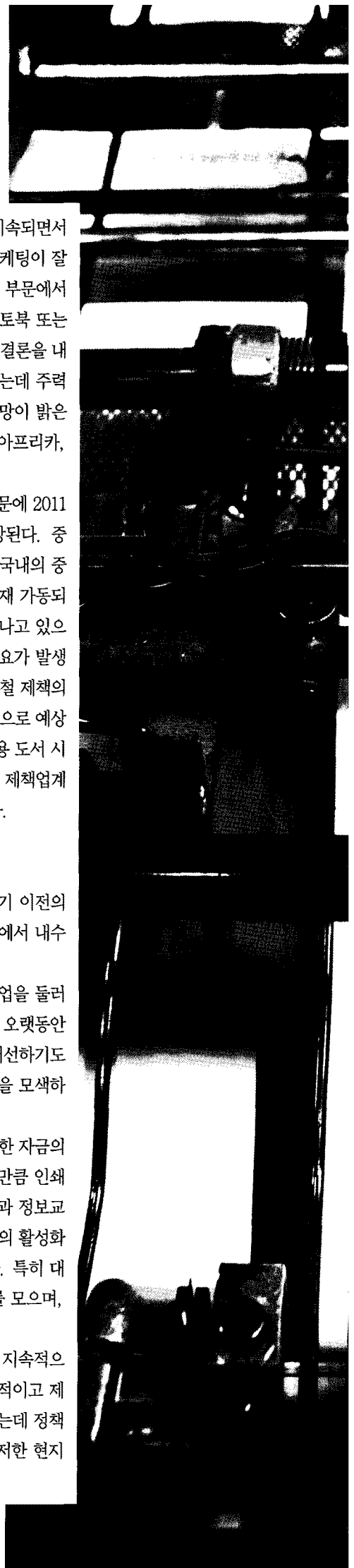
**인쇄물 수출, 제도적인 지원 필요해**

지난해 인쇄물의 수출은 3억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 호조를 보였다. 인쇄물의 수입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복귀했으나 전체적인 인쇄물의 수출입은 그 증가율에 의미를 두기에 금액적인 면에서 내수에 비해 초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인쇄산업의 성장 동력, 특히 내수부문에서의 성장 여력이 약해지고 있고 인쇄산업을 둘러싼 수요 또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수출 부문에서의 활로 모색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쇄업체간의 과당경쟁, 낮은 수주가격, 고유인쇄 영역의 침범 등은 단기간에 개선하기도 어렵고 개선되지도 않은 고질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한편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인쇄업계로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재, 해외 마케팅을 위한 자금의 부족 등 열악한 여건에 맞닥뜨리고 있다. 사실상 단독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인쇄물 수출에 나서기 위해서는 수출 전문가 육성과 영입을 위한 업계 공동의 방안 마련, 특히, 친목과 정보교환을 통해 인쇄수출회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쇄물수출진흥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 및 모임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만 인쇄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국고지원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인쇄물수출진흥센터의 활동이 기대를 모으며, 보다 많은 인쇄업체들이 해외 도서전 등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전시회를 통해 한국 인쇄물의 높은 수준을 적극 홍보하고 현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년 단위의 계획을 벗어난 중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제도를 확립해 수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이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해외 수출업체들은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와 국제적인 안목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한다.



### 출판업계, 불황의 골 깊어질 듯

출판업계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황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대폭적인 감소세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인 도서관매량의 감소, 도서 단가의 실질적인 하락 등으로 그 어려움이 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수년간 나타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주요 독서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독서량이 격감하면서 출판계에 타격을 주었고 수년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된 인터넷서점들의 할인판매로 인한 동네서점의 현저한 감소는 결과적으로 도서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거기에 비해 지난해부터 보급된 스마트폰이 올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될 전망이어서 아동용 도서 시장을 중심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출판업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그나마 불경기의 여파를 덜타던 문학서적들마저도 감소세로 반전되었다는 점이다. 출판업계는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출판업계만의 힘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판업계 일각에서는 출판관련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전자출판업계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출판업계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고 산업전반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의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쇄전문단지 적극 추진해야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중구 을지로와 주교동 일대를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는데 성공한 것처럼 전국 주요 도시별로 인쇄전문단지의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경우에 인쇄진흥지구로 지정될 주교동, 을지로5가, 오장동 일대에는 첨단인쇄문화정보센터, 연관 산업 공동물류보관시설, 인쇄문화체험관,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인쇄산업 인프라를 구축되어 도심재개발, 재정비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첨단 인쇄산업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법규정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은 시세 및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미 전문단지 조성이 확정되어 있는 대구, 경북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참고로 하여 인쇄전문단지의 필요성을 관계당국에 적극 설명하고 지역 인쇄업계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뜻을 모아 중장기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성패여부는 지역 인쇄산업을 둘러싼 여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할 수 있으나 공해산업으로 치부되면서 정책에서 소외되느냐로 갈라지게 되어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인쇄업계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최신 트렌드 보여줄 KIPES와 IGAS

2009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인협에서 주관했던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인쇄전용 서체개발사업 등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1년에도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 사업들은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2011년의 주요 행사로는 4년마다 개최되는 IGAS전시회가 9월에 일본에서 열려 세계 인쇄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09년 JGAS전시회에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정도의 경기후퇴를 경험한 일본의 인쇄관련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시회로는 올해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전환된 국제인쇄산업전(KIPES)은 국내 인쇄산업의 현재와 나아갈 바를 제시하며 세계시장의 트렌드를 한층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어 새롭게 기대를 더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